

>>> KT 오케스트라 동호회 'KT 필하모니'

합주로 하나되고 이웃사랑도 실천



“2008년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KT 사내동아리로 출발한 'KT 필하모니'의 내년 목표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한다'는 모토로 결성된 KT그룹 동아리 성격의 KT 필하모니는 그동안 급선무인 연주 실력을 쌓는 데만 집중했다. 창단멤버들이라보니 단원들마다 연주 실력이 들쭉날쭉해, 연주를 위해서는 평균 실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연주를 위한 몸만들기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내 게시판에 첫 동호인 모집 글을 올린지 두 달여 만에 무려 80여명의 회원이 모일 정도로 반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원들 중 음악모임에서 활동했거나 과거 악기 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반에 불과했지요.”

그러던 것이 현재는 단원이 어느새 100여명으로 불어났고 이제는 제법 실력을 갖춘 단원들도 40여명으로 늘었다. 또, 실제 연주회를 열고 무대 앞에 서면서 자신감도 붙었다. 지난해 말에는 약수동의 카페 게슈탈트에서 송년음악회를 열었고, 올 봄에는 신사동의 전문연주무대인 세실홀을 빌려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조기호 KT 필하모니 총무는 “2차례 앙상블 연주회를 위해 함께 연습하고 실제 무대에 서면서 단원들의 연주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연주회를 통해 이제는 수준급 연주가 가능한 단원들이 40여명에 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나설 계획”이



라고 소개했다.

단원들이 어느 정도 악기 연주에 자신이 붙은 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선연주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 겨울 창립기념일에 맞춰 갖는 정기연주회를 사회봉사활동의 그 첫 관문으로 정하고 맹연습 중이다.

이미 KBS 교향악단의 세컨 바이올린 수석인 방영호씨를 지휘자로 선임해 파트별로 틈틈이 연습 중이다. 연주회 장소도 KT 본사 옆에 있는 계원예술고등학교의 벽강홀로 이미 섭외를 마친 상태다.

조기호 총무는 “올 9월부터는 본격적인 연주회를 위한 연습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력을 검증받고 내년부터는 사회봉사활동으로 양로원, 고아원 등을 돌며 본격적인 봉사연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T그룹 사원들 간 함께 음악 연주를 하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재미에 단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 연주만한 것이 없다는 속칭 ‘연주 폐인’이 생겨날 정도다. 이 때문에 KT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KTF와 KTH 등에서도 단원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속속 늘고 있다.

특히, 과거 음악모임에서 악기를 다루다 그만두었던 사람들과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열정으로 KT 필하모니의 문을 두드린 초보자들도 상당수다. 대표적인 예가 KT 필하모니를 만들어 낸 성연수 KT 필하모니 단장이다.

성연수 단장은 “고교시절 학교 관현악단에서 악기를 우연히 접했다가 대학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만 뒀습니다”라며 “마음 한구석에 항상 연주에 대한 향수와 열정이 있었는데, 마땅한 계기가 없어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뜻 맞는 사람들을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흐뭇해했다.

KT 필하모니 단원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맹연습을 앞두고 8월말 음악캠프를 떠날 예정이다. 연주도 단원 간의 화합과 이벤트가 선행돼야 듣는 이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연수 단장은 “학교 다닐 때는 1년에 두 번씩 5박6일 일정으로 떠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습을 소화했는데, 그건 아니고 함께 연습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큼니다”라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오케스트라 KT 필하모니가 진정한 고객 감동의 실천하는 ‘Wonderfull KT’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K**